

KOSPI 10년 단위로 돌아보면

Strategist 신중호
02. 3779-8447
jh.shin@ebestsec.co.kr



Chart



Implication

- KOSPI, 3년 이상의 박스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일까?
- 막상 10년 단위로 보면, 2010년대 수익률 나쁘지 않음. 1980년대 36%에 못 미치지만, 3월 현재 21% 상승률. 90년대 24%, 2000년대 -6%에 비해 양호
- 흥미로운 점은 중반 이후 방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
- 80년대는 플라자합의와 이에 따른 일본의 내수 버블. 90년대는 역플라자합의, 달러강세+엔화약세로 인한 EM위기와 미국의 버블. 2000년대는 달러약세와 중국을 비롯한 EM의 부상
- 미국이 아닌 미국외 수요국이 부상할 경우 국내증시는 대세상승으로 연결
- 2조달러의 인도의 성장, 중국의 금리자유화, 유럽의 안정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

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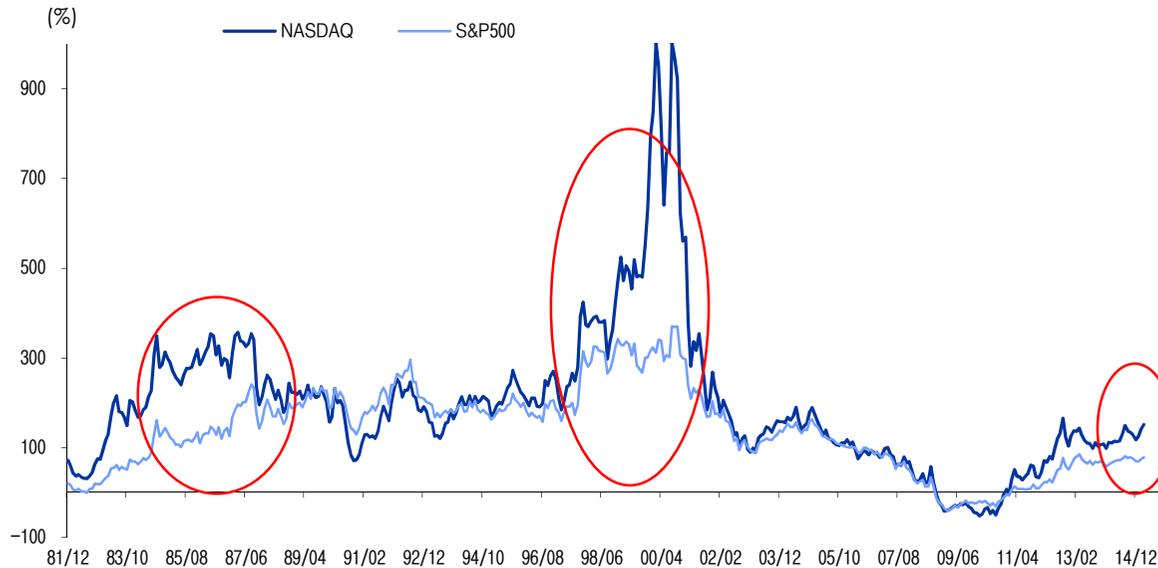
- 1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리듬이 있다(History doesn't repeat itself, but it does rhyme)_마크 트웨인
- 2 2010년대 후반은 미국 외 수요국 부상(1980년대, 2000년대)? 미국 독주시대 재판(1990년대)?
- 3 90년대처럼 되지 않으려면? 1)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달러가 약세로 가야 함 2)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어야 함(미국 외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반증)

나스닥 장기 수익률이 S&P를 앞선다

Quant/Strategy 양해정
02. 3779-0151
hjyang@ebestsec.co.kr



Chart



Implication

-
-
-

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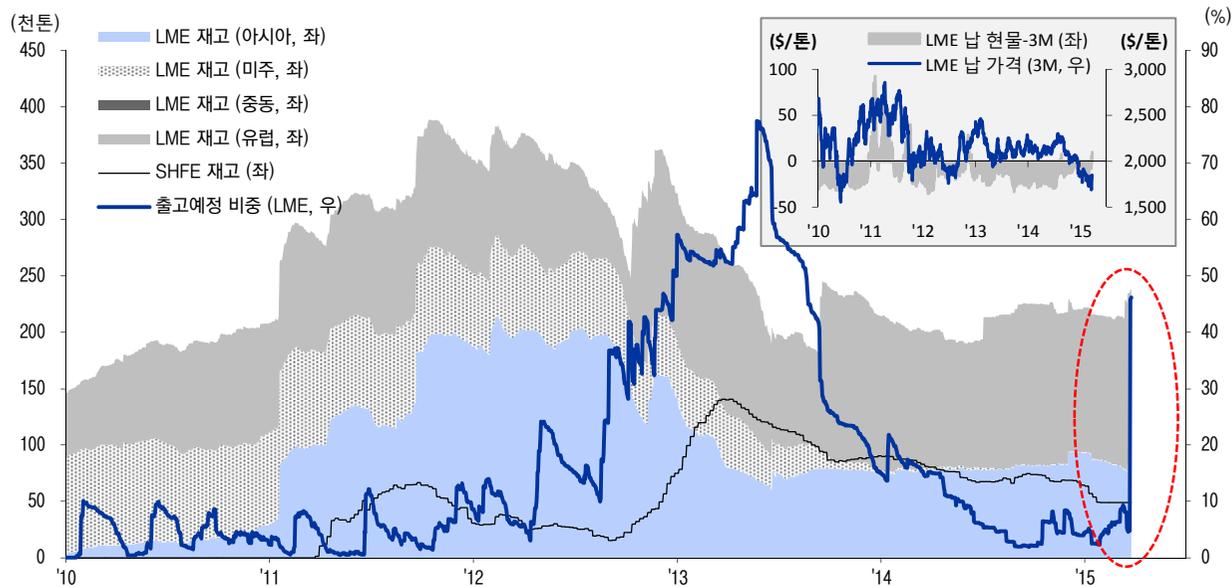
- 1 IT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장기 수익률(10 year Rolling return)에서 S&P지수와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
- 2 80년대 중후반, 90년대 후반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모두 저유가 환경에서 나타남
- 3 저유가 환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IT 같은 소비재 강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

납(Lead), 2Q 전세역전되나?

Commodity Analyst **황병진**
02. 3779-8828
vincent.h@ebestsec.co.kr



Chart



자료: EIA,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

Implication

- LME 재고는 가용재고(On-Warrant)와 출고예정재고(Cancelled Warrant)의 합. 가용재고는 말 그대로 거래소로부터 인수 가능한 재고, 반면 출고예정재고는 LME를 벗어나 실물시장으로의 출고가 예정된 재고.
- 출고예정재고의 증가는 1) 타이트한 실물 수급 상황 하에서 거래소로부터의 인수 수요가 늘어날 때, 2) 보다 나은 보관여건을 제공하는 창고업자 또는 지역으로 재고를 이동할 때, 또는 3) LME 등록창고 외의 보관시설로 실물 재고를 제거할 때 발생.
- 실물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출고예정재고 증가는 향후 한시적/영구적인 LME 재고의 감소를 예고.
- 투자적인 관점에서, 거래소 재고의 감소는 곧 비철금속 가격 지지요인(가격과 음의 상관관계)

Call

- 1 LME 납 재고 중 출고예정재고(Cancelled Warrant) 급증: 3/20일 11,225톤 → 3/23일 109,100톤.
- 2 3월 23일 기준, LME 전체 납 재고 238,050톤 감안할 때 출고예정재고 비중은 45.83% (직전 거래일 출고예정재고 비중은 4.78%)까지 확대. 반면, 가용재고(On-Warrant)는 95.2%에서 45.17%로 급감.
- 3 3월 24일 기준, LME 납 가격 \$1.850까지 급-반등(3/18일 연 저점 톤당 \$1,676.5 기록) 더불어, 타이트한 실물 수급 배팅한 투자자 중심의 근월물 매수 확대로 '현물-3M 기간 스프레드'도 백워드이션 전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해정, 신중호, 황병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